충남의 성장잠재력과 특성화전략

산업경제연구부 : 한 무 호

Ⅰ. 서론

1. 연구목적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을 펼쳐왔으나 국토의 불균형구조는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더욱 가속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IMF 금융위기 이후 국가경쟁력 강화를 국가정책의 최우선 기조로 설정하면서 수도권규제 완화와 지역균형발전과 상반된 정책들이 시책화 되면서 지역간 불균형성장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존하기보다는 먼저 지방 자체의 특성과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발적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의 사회경제의 실태를 분석하고, 충남 내 지역별 성장잠재력을 파악하여 내발적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의 15개 시·군을 공간범위로 설정하고, 지역별 성장잠재력을 분석하여 지역별 특성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상대적인 잠재력 분석을 위해 전국과 비교분석을 병행하고자 한다.

시간적 범위로는 대전시가 충청남도와 분리된 이후인 1990년과 2000년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한다.

3. 연구방법 및 내용

충청남도의 지역별 성장잠재력과 특성화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지역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종 문헌을 고찰하고,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부문별 분포 및 변화추이를 살펴본다.

둘째, 전국과 비교하여 인구, 경제, 사회간접자본 등 각 분야별 충청남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시·군별 분야별 현황을 파악하였다.

셋째, 분야별로 공간을 유형화하기 위해서는 규모와 증가율을 이용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구간을 정하여 정태적인 분석과 동태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넷째, 종합적인 지역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건교부가 낙후지역 선정을 위해 발표한 8개의 지표의 자료를 수집 표준화하여 기존 연구의 설문조사결과를 사용 AHP 분석기법을 통해 종합점수화 하였다.[1)]

Ⅱ. 충남의 지역별 현황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시·군·구 단위를 기준으로 분야별로 규모와 증가율을 이용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구간을 정하여 공간을 유형화하여 정태적인 분석과 동태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지역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건교부가 발표한 8개의 지표의 자료를 수집 표준화하여 기존 연구의 설문조사결과를 사용 AHP 분석기법을 통해 종합점수화하였다.

<표2-1> 지역유형화 기준

규모 \ 성장율	하(<M - 0.5σ)	중(M ± 0.5σ)	상(>M + 0.5σ)
상(>M + 0.5σ)	Ⅰ유형	Ⅱ유형	Ⅲ유형
중(M ± 0.5σ)	Ⅳ유형	Ⅴ유형	Ⅵ유형
하(<M - 0.5σ)	Ⅶ유형	Ⅷ유형	Ⅸ유형

주 : M은 평균, σ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1) 인구규모

전국의 241개 시·군·구를 2000년의 인구규모와 1995~2000년 사이의 인구증가율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였다. 충남의 대부분의 시·군은 중규모의 인구규모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15개 시·군과 계룡출장소 중에 천안시는 Ⅲ유형에 속해 인구규모도 크고, 증가율에 있어서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는 인구규모는 전국 평균수준이나 인구가 전국 타 시·군·구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룡출장소는 소규모의 인구를 갖고있으나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군, 연기군, 공주시, 태안군, 서산시는 인구규모나 증가율에 있어서 전국 평균수준을 나타내는 Ⅴ유형에 속하나 태안군을 제외하고는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군, 부여군, 보령시, 금산군, 홍성군, 논산시는 인구규모에 있어서는 전국 평균수준이나 인구감소율이 타 시·군·구에 비해 높은 Ⅳ유형에 속하고 있다. 청양군은 인구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인구의 감소가 매우 심한 지역으로 Ⅶ유형에 속하였으며 경기, 대전과 서울로 인구가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2> 인구부문의 유형

1) 박현 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다기준분석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0.

증가율 / 규모	-0.69% 이하	-0.69%~1.57%	1.57%이상
264,718명 이상	경기(2) 대구(2) 부산(4) 서울(10) 인천(1) 전남(1)	경기(2) 경남(3) 경북(2) 광주(1) 대구(2) 부산(3) 서울(12) 인천(1) 전남(1) 전북(3)	강원(1) 경기(11) 경남(1) 경북(1) 광주(1) 대구(1) 대전(1) 부산(1) 인천(3) 전북(1) 제주(1) 충북(1) **충남(천안시)**
56,670명~264,718명	강원(1) 경기(1) 경남(4) 경북(4) 광주(2) 대구(2) 대전(2) 부산(6) 서울(2) 인천(2) 전남(6) 전북(5) 제주(1) 충북(1) **충남(서천군, 부여군, 보령시, 금산군, 홍성군, 논산시)**	강원(5) 경기(8) 경남(5) 경북(5) 부산(1) 서울(1) 인천(1) 전남(1) 전북(1) 제주(2) 충북(6) **충남(예산군, 연기군, 공주시, 당진군, 태안군, 서산시)**	경기(12) 경남(2) 경북(2) 광주(1) 대구(1) 대전(2) 인천(1) 전남(3) 충북(1) **충남(아산시)**
56,670명 이하	강원(9) 경기(1) 경남(7) 경북(7) 부산(1) 전남(10) 전북(5) **충남(청양군)**	강원(2) 경기(1) 경북(2) 인천(1)	경북(1) **충남(계룡출장소)**

2) 교육별 인구

앞으로 지식기반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서는 인적자원 확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건이 될 것이다. 충남의 지역별 교육수준을 유형화하기 위해서는 전국 24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995~2000년 사이의 6세 이상의 인구대비 대졸이상 인구구성비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충남지역에서는 계룡출장소가 Ⅲ유형에 속하였으며, 대졸이상의 인구구성비와 증가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천안시, 아산시, 금산군, 태안군은 Ⅵ유형에 속하여 구성비는 전국 평균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구성비의 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시, 공주시, 보령시, 부여군, 예산군, 홍성군, 청양군, 당진군은 Ⅴ유형에 속해 구성비나 증가속도가 전국 평균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기군과 논산시는 구성비는 전국 평균수준이나 증가속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3> 지역별 교육정도별 유형

구분	1.32% 이하	1.32%~9.63%	9.63% 이상
16.87% 이상	경기(3) 광주(1) 대구(1) 부산(3) 서울(3) 인천(1)	강원(1) 경기(6) 경남(1) 경북(2) 광주(1) 대구(3) 대전(5) 부산(2) 서울(19) 인천(1) 전북(2) 충북(2)	경기(4) 경북(1) 광주(2) 대구(1) 부산(1) **충남(계룡출장소)**
5.07%~16.87%	강원(2) 경기(1) 경남(2) 대구(1) 부산(3) 서울(2) 인천(1) **충남(연기군, 논산시)**	강원(15) 경기(11) 경남(17) 경북(17) 광주(1)대구(1) 부산(7) 서울(2) 인천(7) 전남(17) 전북(11) 제주(2) 충북(10) **충남(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당진군)**	경기(13) 경남(2) 경북(4) 대구(1) 전남(2) 전북(1) 제주(1) 충북(2) **충남(천안시, 아산시, 금산군, 태안군)**
5.07% 이하	전남(1)	전남(2) 전북(2)	-

3) 광공업종사자

광공업종사자에 대한 유형화를 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8개도의 157개 시·군과 1990~1995년 사이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충남지역에서는 아산시가 Ⅲ유형에 속해 광공업종사자 규모나 증가율이 전국 평균수준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고, 천안시는 Ⅱ유형에 속해 규모는 상대적으로 높으나 증가속도는 전국 평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산군, 당진군,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은 Ⅵ유형에 속해 광공업종사자 규모면에서는 전국 평균수준이나 성장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연기군, 예산군은 규모나 증가속도가 전국 평균수준인 반면 보령시는 광공업종사자가 매우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군과 청양군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청양군은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태안군은 매우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4> 광공업종사자 유형화

구분	-0.87%이하	-0.87%~9.37%	9.37%이상
23,242명 이상	경기(4) 경남(2)	경기(9) 경남(3) 경북(3) 전북(1) **충남(천안시)**	경기(1) 경남(1) **충남(아산시)**
1,728명~23,242명	강원(7) 경기(9) 경남(2) 경북(1) 전남(4) 전북(1) 충북(1) **충남(보령시)**	강원(2) 경기(5) 경남(2) 경북(7) 전남(8) 전북(3) 충북(5) **충남(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연기군, 예산군)**	경남(5) 경북(4) 전남(3) 전북(2) 충북(4) **충남(금산군, 당진군,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
1,728명 이하	강원(2) 경기(4) 경북(1) 전남(4) 전북(1) **충남(태안군)**	강원(4) 경북(3) 전남(3) 전북(4)	강원(3) 경남(2) 경북(4) 전남(1) 전북(2) **충남(청양군)**

4) 재정규모

지역별 재정규모의 유형화를 위해서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998년 재정규모와 1995~1998년 사이의 증가율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충남지역에서는 천안시가 Ⅲ유형에 속해 규모나 증가속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 서산시는 Ⅱ유형에 속해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증가속도는 전국평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남의 나머지 시·군은 규모나 증가속도에서 전국 평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규모의 증가율은 천안시(19.7%), 논산시(17.8%), 예산군(17.1%), 홍성군(15.9%), 서천군(15.8%), 금산군(15.7%), 부여군(15.3%), 서산시(15.3%) 순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2001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서울특별시는 95.6%이나 광역시는 69.1%, 도는 34.6%, 시는 47.5%, 군은 19.1%, 자치구는 4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수도권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82.1%이나, 비수도권의 평균 재정자립도 63.9%보다 무려 18.2%포인트 상회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재정자립도가 50%미만인 지방자치단체가 197개(80.0%)나 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요소를 충족시키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5> 재정규모의 유형화

구분	3.1% 이하	3.1%~18.3%	18.3%이상
154,552 백만원 이상	-	강원(2),경기(6),경남(3),경북(7),전남(1) 전북(4),제주(1),충북(2) **충남(아산시, 서산시)**	강원(1) 경기(5) 경남(1) 전북(1) 제주(1) 충북(2) **충남(천안시)**
41,365 백만원~ 154,552 백만원	경기(1) 대구(1) 대전(2) 부산(5) 인천(2)	강원(10) 경기(14) 경남(15) 경북(12) 광주(4) 대구(7) 대전(3) 부산(8) 서울(14) 인천(6) 전남(22) 전북(10) 제주(1) 충북(7) **충남(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강원(5) 경기(5) 경북(3) 광주(1) 부산(2) 서울(10) 인천(2) 전남(1) 전북(1) 제주(1)
41,365 백만원 이하	-	-	-

<표2-6> 충남의 시·군별 재정자립도(2001)

(단위 : %)

합 계	30.5	공 주	19.0	군 계	20.8	청 양	12.6
도 본 청	24.4	보 령	19.6	금 산	16.8	홍 성	17.8
시·군계	26.7	아 산	34.8	연 기	34.3	예 산	19.8
시 계	32.5	서 산	32.0	부 여	16.9	태 안	22.9
천 안	52.4	논 산	23.6	서 천	18.1	당 진	30.4

자료 : 행정자치부,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02.

5) 면적당 도로연장

지역별 사회간접시설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서는 전국 22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998년 면적당 도로연장과 1995~1998년 사이의 증가율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규모면에서 상위그룹은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가 포함되었으며, 도지역으로는 경기도가 유일하게 포함되었다. 특히, 경기와 인천지역만이 규모과 증가속도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Ⅲ유형에 포함되어 이 지역 도로시설 투자가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충남지역에서는 천안시와 아산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모면에서 하위그룹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와 아산시가 Ⅵ유형에 속해 규모면에서는 전국 평균수준이나 도로시설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시는 Ⅸ유형에 속해 규모는 작으나 도로시설의 빠르게 확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연기군, 홍성군, 서천군, 태안군, 당진군은 규모나 성장속도에서 전국 평균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예산군과 청양군은 규모나 성장속도에서 모두 낮게 나타

나 도로시설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7> 면적당 도로연장 유형화

구 분	1.36% 이하	1.36%~9.40%	9.40% 이상
5.97㎞/㎢이상	경기(1) 부산(7) 서울(23) 인천(1)	광주(1) 대구(4) 부산(2) 서울(2) 인천(1)	경기(2) 인천(2)
0.97㎞/㎢~5.97㎞/㎢	경기(1) 경북(1) 광주(3) 대구(1) 부산(2) 충북(1)	경기(5) 경남(7) 광주(1) 대구(2) 대전(2) 부산(3) 인천(1) 전남(2) 전북(2) 제주(3)	강원(1) 경기(6) 경남(4) 인천(2) 전남(1) 충북(1) **충남(아산시, 천안시)**
0.97㎞/㎢이하	강원(4) 경기(3) 경북(1) 인천(1) 전남(4) 전북(3) 제주(1) 충북(1) **충남(예산군, 청양군)**	강원(12) 경기(8) 경남(7) 경북(19) 부산(2) 전남(13) 전북(9) 충북(7) **충남(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연기군, 태안군, 홍성군)**	강원(1) 경기(5) 경남(2) 경북(2) 대구(1) 전남(2) 충북(1) **충남(서산시)**

6) 종합분석

충남의 지역별 발전정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 선정된 8개 지표를 기준으로 표준화점수기법을 이용하여 전국 23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발전정도의 지수를 산정하였고, 부문별 중요도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KDI의 연구결과를 사용하였다.

<표2-8> 지역별 발전정도를 위한 지표

부 문	지표항목	측정방법	자료출처	비 고
인 구	인구증가율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	통계청,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기존
산 업	제조업 종사자비율	(제조업종사자수/인구)×100	각 시도 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기존
지역 기반시설	도로율	(법정도로연장/행정구역면적)×100	통계청,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기존
교 통	자동차 보유가구수 비율	(자동차보유가구수/총가구수)×100	통계청,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신규
보건사회보장	인구당 의사수	(의사수/인구)×100	통계청,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신규
	노령화지수	(65세 이상/인구)×100	통계청,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신규
행재정기타	재정자립도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100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기존
	도시적토지이용비율	지목상(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행정구역면적×100	지방행정정보은행	신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국 235개 시·군·구를 9개 그룹으로 구분하였을 때, 경기의 6개 시 9개 구 1개 군, 부산의 1개 구, 서울의 8개 구, 인천의 1개 구, 충북의 1개 구가 1순위 그룹에 속해 발전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강원의 1개 군, 경남의 4개 군, 경북의 4개 군, 경북의 5개 군, 전남의 11개 군, 전북의 4개 군, 충북의 1개 군은 9순위 그룹에 속하여 발전정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은 천안시가 3순위 상위그룹에 속해 발전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산시와 계룡출장소가 4순위, 서산시, 당진군, 연기군이 5순위, 예산군이 6순위의 중위그룹에 속하였고, 보령시, 공주시, 논산시, 홍성군, 태안군은 7순위, 금산군, 청양군, 부여군은 8순위로 하위그룹에 속하였다.

충남지역내에서는 천안시, 계룡출장소, 아산시, 연기군, 당진군,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논산시, 공주시 순으로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천군, 청양군, 금산군 등은 발전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구분되었다.

<표4-15> 발전정도에 따른 지역유형화

순위		발전정도
상	Ⅰ	경기(6시,9구,1군), 부산(1구), 서울(8구), 인천(1구), 충북(1구)
	Ⅱ	경기(5시,2구,2군), 경남(3시), 대구(1구), 부산(2구), 서울(13구), 충북(1구)
	Ⅲ	경기(5시,1군), 경북(1시,1군), 광주(1구), 대구(2구), 대전(3구), 부산(4구), 서울(4구), 인천(3구), **충남(천안시)**
중	Ⅳ	강원(1시), 경기(2시), 경남(2구,2시), 경북(2구), 광주(1구), 대구(3구), 대전(1구), 부산(3구), 서울(1구), 인천(2구), 전남(1시), 전북(1군), 제주(1시), **충남(아산시, 계룡출장소)**
	Ⅴ	강원(2시), 경기(2시, 1군), 경남(1시), 경북(1시), 광주(2구), 대구(1구), 부산(4구,1군), 서울(2구), 전남(1시), 전북(3시,1구), **충남(서산시,당진군,연기군)**, 충북(1군)
	Ⅵ	강원(2시,2군), 경기(2군), 경남(1시,1군), 경북(2시,1군), 광주(1구), 대전(1구), 부산(1구), 전남(2시,1군), 전북(1구), 제주(1시,1군), **충남(예산군)**, 충북(2시,1군,1출장소)
하	Ⅶ	강원(2시,4군), 경기(1군), 경남(2시,2군), 경북(3시,2군), 전남(1군), 전북(1시,1군), 제주(1군), **충남(보령시,공주시,논산시,홍성군,태안군)**, 충북(1군)
	Ⅷ	강원(4군), 경남(3군), 경북(1시,4군), 전남(1시,4군), 전북(1시,2군), **충남(금산군,청양군,서천군,부여군)**, 충북(2군)
	Ⅸ	강원(1군), 경남(4군), 경북(4군), 경북(5군), 전남(11군), 전북(4군), 충북(1군)

청양군, 금산군, 홍성군, 부여군은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고 고령화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금산군, 태안군, 공주시, 보령시는 도시적 토지이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한편, 예산군, 홍성군, 서천군, 태안군은 의사비율이 낮게 나타났고, 금산군, 예산군, 서산시, 태안군은 면적당 도로연장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Ⅲ. 경제성장잠재력

특화계수가 높다고 해서 그 산업이 부의 성장률을 보인다면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역산업의 성장잠재력은 전이-할당분석을 통한 지역산업의 성장률 시차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산업유형별 기준에 따라 살펴보고자 하였다.[2)]

<표3-1> 산업별 유형

2) 지역성장율의 총시차는 지역의 실질성장율과 전국의 실질 성장률의 차이로 정의한다.

$$\Delta = g_r - g_n = (g_r - g_m) + (g_m - g_n)$$

구 분	총성장율시차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성장산업	+	+	+
성장잠재력산업	+	-	+
부양산업	+	+	-
(-)성장산업	-	-	-
정체산업	-	-/+	+/-

충남의 경우 1995~2000년 사이 성장률이 높은 산업들은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연구및개발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수도사업으로 각각 851.8%, 389.1%, 233.1%, 105.3%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의 종사자는 5년 동안 2,402명으로 38명은 국가성장에 의한 기여분이고, 153명은 산업구조요인에 의한 기여분이며, 2,211명은 지역자체성장에 의한 증가분으로 나타났다. 연구 및 개발업은 572명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20명은 국가성장에 의한 기여분이고, 47명은 산업구조요인에 기여분이며 505명이 지역자체성장에 의한 기여분으로 나타났다.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은 895명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52명이 국가성장에 의한 기여분이고, 60명은 산업구조요인에 의한 기여분이며 783명은 지역자체성장에 의한 기여분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사업의 증가분은 217명으로 그 중 국가성장에 의한 기여분은 28명이고, 산업구조요인에 의한 증가분은 20명이며 지역자체성장에 의한 증가분은 169명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는 사무기계 및 회계용기계제조업, 재생가공원료업,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업, 자동차트레일러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기타운송장비업 순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각각의 성장률은 121.4%, 90.9%, 65.7%, 64.7%, 62.7%, 62.6%로 나타났다. 사무기계 및 회계용기계제조업의 종사자는 974명이 증가하였으며 국가성장에 의한 증가분은 -83명, 산업구조요인에 의한 증가분은 360명, 지역자체성장에 의한 증가분은 697명으로 나타났다. 재생가공원료업은 120명이 증가하였으며 107명이 산업구조요인에 의한 증가분으로 나타났다.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업은 935명으로 그 중 894명이 지역자체성장에 의한 증가분으로 나타났다. 자동차트레일러업은 총 4,869명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6,149명이 지역자체성장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은 총 3,613명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3,316명이, 기타운송장비업은 총 321명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280명이 지역자체성장에 의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성장산업으로는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연구 및 개발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 서비스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농림어업, 광공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등은 성장잠재력산업으로 산업구조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나 지역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중에서는 음식료품, 고무 및 플라스틱, 조립금속제품, 사무기계 및 회계용기계,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기타운송장비, 재생용가공원료은 성장하는 업종으로 나타났고, 자

동차트레일러, 가구 및 기타제조업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업종으로 나타났다.

충남 제조업의 지역별 성장업종과 성장잠재력업종을 살펴보면, 천안시, 아산시, 연기군을 중심으로 사무기계및회계용기계업, 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업 등 첨단제조업이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시·군에서는 음식료품업이 성장업종으로 나타났다.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은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논산시, 예산군의 성장잠재력업종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트레일러업은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연기군, 당진군의 성장잠재력업종으로 나타난 반면에, 부여군은 성장내지 성장잠재력업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옻남의 제조업은 천안시, 아산시, 당진군 등 서북부지역과 대전광역시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3-2> 지역별 성장잠재력 제조업

지역	성장업종	성장잠재력업종
천안시	고무및플라스틱업, 제1차금속제품업, 조립금속제품업, 사무기계및회계용기계업, 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업	섬유제품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자동차트레일러업, 가구및기타제조업
공주시	음식료품업, 고무및플라스틱업	펄프종이종이제품업, 출판인쇄기록매체업, 화합물및화학제품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업
보령시	음식료품업, 출판인쇄기록매체업, 조립금속제품업	펄프종이종이제품업
아산시	음식료품업, 출판인쇄기록매체업, 제1차금속제품업, 조립금속제품업, 사무기계및회계용기계업,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업	의복및모피제품업, 화합물및화학제품업, 고무및플라스틱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자동차트레일러업, 가구및기타제조업
서산시	코크스석유핵연료업, 고무및플라스틱업,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업	음식료품업, 섬유제품업, 화합물및화학제품업, 자동차트레일러업, 가구및기타제조업
논산시	제1차금속제품업, 조립금속제품업	펄프종이종이제품업, 출판인쇄기록매체업, 화합물및화학제품업 고무및플라스틱업, 비금속광물제품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업
금산군	음식료품업, 출판인쇄기록매체업, 코크스석유핵연료업	섬유제품업, 의복및모피제품업, 화합물및화학제품업, 고무및플라스틱업, 비금속광물제품업, 조립금속제품업,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업, 가구및기타제조업
연기군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업	고무및플라스틱업, 자동차트레일러업
부여군	-	-
서천군	음식료품업, 출판인쇄기록매체업	섬유제품업, 고무및플라스틱업, 조립금속제품업, 가구및기타제조업
청양군	음식료품업	목재및나무제품업, 출판인쇄기록매체업, 조립금속제품
홍성군	음식료품업	출판인쇄기록매체업, 고무및플라스틱,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예산군	조립금속제품	고무및플라스틱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가구및기타제조업
태안군		섬유제품업
당진군	고무및플라스틱업, 기타운송장비업	섬유제품업,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업, 자동차트레일러업, 가구및기타제조업

Ⅳ. 결론 및 정책제언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는 WTO 뉴라운드의 출범에 따른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의 도래와 급속한 기술혁신과 정보화의 급진전으로 지식이 산업발전의 핵심요소로 부각되는 지식기반경제사회로의 이행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개방으로 인해 동북아 경제권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및 비즈니스 거점화를 위한 주변국간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서해안시대를 맞이하여 충청남도가 담당해야할 역할은 동북아경제권의 성장중심지로서 국제화의 창구역할, 중국대륙과의 최근접지로서 중국진출의 교두보, 수도권 기능 수용의 최적 대안지로, 국민소득의 증가와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한 주변 대도시민들의 휴양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충남이 담당해야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인접지역과의 분업구조, 지역별 특성을 살린 차별화 전략과 관광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그러나 IMF경제위기 이후 개방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격차가 더욱더 심화되고, 이러한 수도권의 과밀은 수도권의 확대로 이어져 충남의 동북부지역인 천안시와 아산시는 수도권 산업기능의 최적의 대안지로 인구와 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수도권의 spill-over 효과는 충남 지역내의 지역간 경제격차란 또 다른 파급효과를 야기하고 있다.

충남지역의 인구와 광공업체의 분포를 보면,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에 2000년 현재 총 인구 1,922천명 중 36.8%, 광공업체의 47.7%가 집중되어 있으며, 광공업체는 충남의 서북부지역과 대전근교지역 75.1%가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격차현상은 지식기반경제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충남지역내에서 지역간 갈등, 성장지역의 난개발, 침체지역의 산업공동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자생적인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충남의 생활권은 지리적 근접성이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대전근교권, 북부내륙권, 북부해안권, 중부권, 남부해안권 5개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충남지역내의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권역별 추진해야 할 발전전략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천안시와 아산시를 포함하는 북부내륙권은 수도권의 확대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첨단산업의 집적지로 성장하고 있으며, 교육, 생활 및 도시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어서 충남의 지역혁신체제의 거점지역과 국제적인 산업생산기지로의 역할

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학·연 연계체계 강화를 통해 기술혁신을 위한 지원시스템과 고급인력공급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산업단지 배후도시의 상업시설, 교육, 문화 등 정주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주, 논산, 금산, 연기를 포함하는 대전근교권은 대전이라는 커다란 시장을 바탕으로 역사·문화를 이용한 관광 및 근교농업을 활성화하고, 대덕연구단지의 연구결과를 활용한 첨단산업 생산기지로의 역할을 담당해야할 것이다.

서산, 당진, 태안을 포함하는 북부해안권은 수도권과 인접해 산업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풍부한 해양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으로의 상권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주 및 유통의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해양관광산업의 메카로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홍성, 예산, 청양을 포함하는 중부권은 전형적인 농업지역으로 환경농업과 첨단농업기술을 적용하여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는 한편 이와 연계하여 기존의 산업단지와 다른 공장과 주거지가 함께 하는 전통음식료품산업단지 조성과 농축산물 유통거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천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이용한 근교관광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충남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대규모 개발의 소외지역이었고, 농산물의 개방화로 인해 지속적인 침체지역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충남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획기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보령, 서천, 부여를 포함하는 남부해안권은 주변의 산업지구와 보완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개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보령시는 대중관광의 거점과 중부내륙과 중국을 연결하는 물류·유통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서천군은 군산·전주, 대전지역으로 지향한 중부지역의 관광거점으로 규모에 적합한 관광·위락단지를 조성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고, 부여는 백제문화권의 고도로서 역사·문화관광의 거점으로 서해안의 해양관광과 연계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근교농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지식기반산업 실태조사,” 2000. 2.

고병호, “지역개발이론의 체계적 접근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6권 제2호, 1994.

김군수, "경기 31개 시·군의 성장잠재력 분석", 경기개발연구원, 1995. 12.

김선기·권오혁, “신산업체체에 부응한 지방산업단지 개편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김안제, “지역간 경제적 격차에 관한 측도연구,” 환경논총, 제1권 제1호, 서울대학교, 1974.

김영모, “제조업 및 3차산업의 입지가 대도시 인구증가에 미치는 영향,” 도시행정학보, Vol. 5, 한국도시행정학회, 1992.

김영용·박진석, “한국경제성장과 지역소득격차,” 학술대회논문집, 한국경제학회, 1995.

김영정, “현대 한국도시의 차별적 집적현상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6집, 1989.

김현주 외 5명, “세계 도시경쟁력 비교,” 삼성경제연구소, 1997. 1.

노병한, “지역불균형의 이론적 배경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제16집, 1호, 1991.

박문정, “지역경제의 성장요인과 구조변동에 관한 연구 ;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박사논문, 경희대학교, 1986.

박범조·고석찬, “지역불균형 발전의 결정요인,” 지역연구, 제14권 제2호, 1998.

박양호 외, "중소도시의 성장과 구조", 국토개발연구원, 1988.

박양호, “지방경제의 진단과 활성화 방안,” 지방경제 활성화 심포지엄, 2001.

박용규, “지역경제 현안과 발전모델 모색,” 삼성경제연구소, 2001. 2.

박현 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다기준분석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0. 12.

삼성경제연구소, “지방자치와 지역특화산업,” 1995. 6.

오상봉 외 9명, “지식기반산업의 발전방안,” 산업연구원, 2000.

장익수, “우리나라의 지역격차 현황과 변동추이 및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989.

통계청, “인구 및 주택 총조사” , 2000.

---------, “인구이동통계연보” , 2000.

---------,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 2000.

황명찬, “한국의 지역격차와 지역정책,” 국토연구, 제1권, 국토개발연구원, 1982.